

무너진 기초 질서

4 생활화된 쓰레기 투기

무심코 버리고... 칩 밟고... "낮 뜨겁다"

광주 시내 주요 도로와 거리가 버려진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택가와 유흥밀집지역은 물론 시내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발길이 미치는 곳에는 어김없이 각종 쓰레기가 가득하다.

지난 1일 오후 4시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대 후문. 유흥업소와 음식점이 즐비한 골목길에는 노래방·호프집 등을 선전하는 전단지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각종 과자봉지와 민병 등도 여기저기 날려져 마치 쓰레기장을 연상케 했다. 식당 밀집지역 골목길에 들어서자 한 쌍의 남·녀가 도란도란 얘기를 주고 받으며 아무 거리낌 없이 손에 들고 있던 과자봉지를 내던졌고, 주변에는 누군가 몰래 버린 음식 찌꺼기가 묻어 있는 비닐, 깨진 술잔 등 온갖 쓰레기가 섞여 있었다. 용봉·상무지구, 충장로 등 유흥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무등빌딩 앞 버스정류장. 땅 바닥에는 구겨진 담배 궤초 40여 개가 '흰 눈'이 내린 것처럼 승강장 주변에 널려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30대 남성도 들고 있던 담배를 버린 뒤 침까지 뱉고 버스에 오른다. 누구도 나무라는 사람은 없다.

비슷한 시각 광주시 서구 유덕동 빛고을로 진입로. 퇴근길 차량 수십 대가 길게 줄지어 늘어선 곳이었다. 운전자들은 차 창문을 연 채 왼팔을 밖으로 내밀고 있었다. 파란 불로 신호가 바뀌자 한 운전자가 휴지 조각을 차창 밖으로 내던지며 침



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지하상가 입구에 버려진 쓰레기. 하지만 관할 구청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운전중 휴지나 담배꽂초 버리기 예사 투기전수 증가 불구 단속은 되레 줄어

을 뱉었다. 취재진이 이 곳에서 30여 분 동안 지켜본 결과 운전 중 휴지나 담배꽂초를 버리고 간 경우는 무려 21건이나 됐다.

실종된 시민의식이 '깨끗한 광주'를 더럽히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선 구청과 경찰은 '인력 부족'

을 이유로 단속을 게을리 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각 구청별 쓰레기 투기 과태료(3만원) 부과는 ▲동구 39건(231만 원) ▲서구 36건(176만 원) ▲남구 13건(105만 원) ▲북구 50건(304만 원) ▲광산구 182건(864만 원) 등 총 320건·1천

68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49건(3천559만 원)에 비해 28.7%나 감소한 수치다. 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일선 구청에선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시민 정모(31·광주시 서구 농성동)씨는 "길을 걷다 무심코 침을 뱉고, 쓰레기를 아무렇게도 양치 버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며 "구청장들이 주민 표본 의식하지 말고 과감하게 단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2009년 준공 '북부노인타운'

공동작업장 월급도 줍니다

공동·제조 사업장 등 갖춰

광주시가 2008년을 목표로 조성 중인 '북부노인복지타운'에 공동작업장 등 노인 일자리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광주시는 2일 "최고의 노인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을 통한 건강관리와 여가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북부노인복지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했다.

시는 공교절차가 끝나면 지방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 자문·심의 등을 거쳐 연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북부노인복지타운조감도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190억원을 들여 오는 2009년까지 북구 효령동 일원 10만2850㎡ 부지에 건평 4천235㎡ 규모로 일자리지원시

설, 여가·문화시설, 평생학습시설, 체육시설 등을 갖춘 북부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하게 된다. (조감도)

일자리지원시설은 종합지원센터, 공동작업장, 제조사업장,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는 광주 노인 10만5천802명 가운데 12%가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북부노인복지타운이 준공되면 노인일자리 창출, 은퇴 전후 노인의 평생학습체 구축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북구 '희망스타트 지원센터' 문열어 광주시 북구는 2일 오후 2시 주민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북구청 제공>

주암호 등 4대 상수원 오염 감시

영산강환경청, 영산강·섬진강 수질개선 나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희정)은 전국 5대 강 중 수질이 가장 나쁜 영산강의 환경개선을 위해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수질 개선 사업'에 나선다.

환경청은 2일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광주·전남 환경단체 대표들과 '영산강·섬진강 수질 개선 공동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올해 2억6천여만원을 투입, 주암호 등 4대 상수원 오염 감시 등 23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주요 사업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생태조사 ▲주암호·상사호 등 4대 상수원 오염행위 감시 ▲제2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섬진강 지킴이 사업 (환경감시 기동반 등 운영) ▲영산강 수중정화 및 폐기물 수거작업 ▲지역민과 함께하는 하천 사랑(주암호 외 래어중 퇴치사업) ▲섬진강 수달 생태조사 ▲생활환경 실천교육(일일현장 환경 체험교육) 등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환경보전·감시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와 공동협력해 사업을 펼치는 만큼 영산강·섬진강 수질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 기간 동안 중간 평가를 실시,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

'119가족사랑 안전캠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첨단지구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119 가족사랑 안전체험캠프'를 개최한다. 캠프에서는 화재 진압, 심폐소생술 및 기도 폐쇄 응급처치, 구조 활동 등을 배우게 된다.

이 밖에도 소방상식 퀴즈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며, 솜사탕 만들기·풍선 만들기·짬주와 기념사진 촬영 등 재미있고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문의 613-2114.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보육 교사·공무원 태부족

광주 7대도시 중 최하위

광주시의 보육담당공무원과 보육교사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적은 것으로 시민단체 조사 결과 나타났다.

2일 '참여자치 21'이 지난해 여성가족부 보육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보육담당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아동수는 3천189명으로, 서울(1천59명)과 인천(1천380명), 대전(1천394명)을 비롯한 7개 특별·광역시 중 최하위였다.

또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수도 10.8명으로 부산(10.8명)과 함께 7대 도시 중 가장 많았다. 대전은 교사 1인당 8.5명으로 가장 적었고 서울이 9.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생활안내

| | | |
|---|--|--|
|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 신 고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청의성률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민안심 1388 ●국제종합상담센터 국제전화 1588-0060 ●영문인원상담 광주전남법무청 1588-9090 ●소치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 ●학교폭력 국민안심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18 ●가정폭력 여성긴급국번없이 1366 여자행사기동대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민안심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민안심 1389 |
|---|--|--|

"예방주사, 무서워 마"

전염병 예방접종 캠페인

광주시가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시는 이를 위해 4일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16일 동구청, 6월 7일 북구청 등에서 전염병 예방접종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는 예방접종 캐릭터를 활용한 인형극 공연, 풍선아트와 마술쇼 등을 통해 주사를 무서워하는 어린이들에게 친근감 있게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의 영·유아(0~6세) 예방접종 대상자는 8만6천500여명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광주전남 이용기능장 1호

가발 확장 이전 시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자

심는가발 탄생!!

심는 가발이란 인체 두피에서 모발이 한가닥 한가닥 자란 것처럼 보이며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울백도 OK) 따라서 가발머리도 스포츠형으로 맞춤형이 가능합니다.

- 1997년 CAT 불린서 세계선수권대회 대상수상에 빛나는 전국 최고의 실력자 이수재원장이 직접 시술합니다
- 1:1 원장직접 개별상담실 운영
- 타사제품과 비교할수 없는 전국 최저가 시술
- 타사제품 고가보상판매 실시
- 타사제품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은 상담해 드립니다
- 30년 경력의 이용사가 직접착용시술 컷트 관리까지 해드립니다
- 시내·외 출장가능 / 신용카드 환영
- 올백스타일, 취침, 수영, 사우나, 축구, 헬스, 테니스 어떤 운동에도 장애가 될수 없습니다

최상품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대산프리모남녀가발맞춤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2-4622~3, 673-5858
 원장 이수재 011-607-5330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무료전화 080-323-5858
 E-mail: daesangaball.co.kr

일본 직수입 구제 전문샵 (토·소매)

- 도쿄쥬스 남·녀 의류, 신발, 가방 외 각종 소품 다양하게 구비
 - ① 호점 : 금남지하상가 0동8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7-5355
 - ② 호점 : 광주세무서 정문 맞은편(밀리오레 옆) 062)233-5355
 - ④ 호점 : 두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062)265-5355
- 리틀도쿄 아동구제·캐릭터전문(의류, 신발, 가방, 우산, 실내용 등 다량구비)
 - 금남지하상가 0동9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8-1130

●광주 최초 일본 구제 멀티샵
 ●당신의 패션이 시작되는 곳
 ●기성품은 변화 개성연출
 ●Nippon Style

●희망의 품격
 ●부담없는 가격
 ●편안한 쇼핑

슈퍼맨

파워레인저

유캐드

프린세스

슈가문

도쿄쥬스 · 리틀도쿄 아름다운 당신, 오늘 꼭 한번 찾아주세요!!